

密陽朴氏의 原型을 찾아

이 땅에 하늘이 열리며 王國을 건설, 흠어진 백성을 아우르며 平安케 했고 민족의 공동체를 변영의 길로 안내했던 赫居世 聖祖가 있었다. 그분의 姓을 ‘朴氏’라 했고, 그로부터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英明한 전통으로 한결같이 이어온 新羅朴氏는 우리나라의 名門巨族을 이룬 門中이 되었다.

신라박씨의 家系를 훑어보면, 왕족으로서 국가경영의 일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가 번득일 때도 있었다. 신라 1천여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흔적은 얼마든지 엿볼 수 있다. 기원전 57년 혁거세 성조께서 왕으로 나아감에 따라 신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 3대왕까지 그리고 다시 5대에서 8대 까지 왕위를 이어받아 德治로 신라왕조의 기틀을 다졌고, 羅末에 이르러 53대 神德王에서 3대에 걸쳐 왕위에 나아가 바람 앞 등불 같은 나라를 되살리려 지혜를 모았었다. 신라 초기와 말기에 걸쳐 열분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정사에 확연히 밝혀진 기록으로서 고귀한 문중의 혈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사의 기록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王國의 건설과정에서 武力이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합의체에 의한 추대를 통하여 왕위에 나아갔고 또한 평화적인 王權交替가 가능했던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국초의 1백여년간 3대에 걸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방식으로 왕위를 繼承・讓位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권창출을 위해 파행적이고도 추악한 몸싸움을 다반사로 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和尓制度’라는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왕위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1백여년간 누리던 왕권을 쉽게 넘겨줄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이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이념인 民本主義와 德治主義를 이미 2천년 전에 이상적으로 실현했던 인물들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시의 왕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이 <三國史記> 卷1, 38(B.C. 20)年條에 나타나 있다. 馬韓과의 修交를 위해 파견된 新羅의 重臣인 瓠公이 마한왕의 꾸밈음을 받고 대담하는 장면에서 건국 초기의 新羅 威勢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余聞天子之有天下 聖人一始祖 赫居世와 閼英王妃—이 나라를 이룩한 후로부터 人事가 바로 잡히고, 辰韓 遺民으로부터 弁韓・樂浪等國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께서는 賢明하셔서 저를 파견하여 수교하시니 이는 가히 과분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왕께서는 도리어 군사로써 위협하니 이는 어떠한 뜻입니까?”

신라 使臣 호공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朝廷을 이끌고 있었던 신라왕 혁거세 성조의 출중했던 역량이 신하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미루어보면 당시 ‘왕’이라는 권위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건국으로부터 184년 阿達羅尼師今을 끝으로 730여년이 지난 뒤 공교롭게도 자신들의 선조가 세운 왕국의 末尾를 정리나 하려는 듯 912년 53대 神德王이 왕위에 나아갔다.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마지막 노력도 별수없이 927년 55대 景哀王에 이르는 15년 동안, 3대를 마지막으로 왕국의 운명과 함께 朴氏王號는 끝이 났다.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935년 신라는 56대 경순왕이 신홍국인 高麗 太祖 王建에게 투항함으로써 신라 1천년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羅末의 혼란기에서 태어난 高麗王朝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박씨의 家系도 중요한 변천사를 맞게 된다. 羅末 麗初를 거치면서 어떤 경위에 의해 경명왕의 제1 왕자이며 혁거세 성조의 30세손인 諱 彦忱이 密城君에 봉해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부터 ‘密陽朴氏’가 비로소 탄생된다. 밀성군에 봉해지게 된 시기에 대해서 傳承家譜에는 917년 경명왕이 왕위에 오른 해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그때가 극도의 혼란기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어떤 설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밀성군을 포함한 8大君이 각 郡에 分封됨에 따라 흔히 말하는 박씨문중의 8대군파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밀성군파가 다른 대군파보다는 유달리 번성함으로서 신라박씨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으며 오늘 날까지도 각계 각층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수많은 宗人들을 볼 때 先祖들의 陰德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후에도 밀성군파는 엄청난 힘으로 번성에서 번성을 거듭하게 된다. 文義·潘南·晉州 등 수많은 새로운 문파가 일어나니 이는 모두가 밀성군파에서 파생되었으며 한결같이 우리 역사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密城’이란 지금의 경상남도 密陽市의 옛 이름이다. 전하는바에 의하면 밀양부는 신라의 離宮臺와 정자가 있어 당시의 왕들이 자주 들러 백성을 慰撫하고 즐기던 곳이었다고 하니 경명왕의 왕자가 밀성군으로 봉해진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1997년 7월 7일

國會議員·신한국당 총재비서실장

六十四世孫

朴範珍